

국제유가 출렁...농협 300억원 투입 유가 인상 최소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농협 주유소 방문(농협 제공)

평균 대비 저가 판매...300억원 집중지원 영농철 앞두고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주력

농협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국제유가가 출렁이는 가운데 농협 자체 재원 300억원을 즉각 투입해 유류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농협은 면세유 할인 지원 250억원, 농협주유소 할인 지원 50억원 등 총 300억원을 들여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유류비를 최대한 낮추겠다고 8일 밝혔다.

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국제유가 상승이 영농비 증가로 이어지는 현상을 조기에 차단하고, 물가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자 이번 300억원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사로 즉각 전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면세유 할인 지원액 250억원은 앞으로 한달간 농민들이 소비하는 물량에 적용된다. 할인 물량은 최근 3년간 3월 평균 소비량의 50%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물량은 농업분야 사용량이 많은 경유, 등유, 휘발유 순으로 차등배정되며, 한달간 사용량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농협중앙회 예산으로 한다.

주유소 할인은 NH농협은행 재원 50억원이 투입된다. 3월 13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농협

주유소(NH-OIL)에서 NH농협카드 5만원 이상 결제 시 리터당 200원 캐시백 할인(NH pay 사전 응모시 최대 할인금액 1만원)을 제공한다.

전국 717개 농협주유소는 이번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을 최대한 자제하여 시장 평균 소비자가 대비 휘발유 83원, 등유 118원, 경유 140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300억원 지원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가 및 소비자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유류 가격지원이 농업인 영농비 부담을 줄여 농산물 가격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농협은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농업인과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전국 농협주유소에서 난방용 등유를 대폭 할인 공급하고, 영농자재를 최대 30% 할인 공급하는 특별할인행사를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etimes.com

농식품부, 제11회 흙의 날 기념식 개최

기념식 및 AI·역사 특별강연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흙의 날 기념식을 열고,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흙의 날은 농업·농촌·농민의 '3농'과 '열심(十)·한일(-)'을 합쳐 '흙(土)이 된다'는 의미로 3월 11일로 지정됐으며, 올해는 '일(1)상 속에 일(1)구는 생명, 흙과 사람의 약속'을 주제로 기념식을 진행했다.

기념식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흙 보전에 기여한 김영재 영암군 4H연합회 회

장, 이선임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등 유공자 16명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흙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AI 기술과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시네마틱 영상 '흙: 인류의 가장 오래된 혁명'을 상영해 참석자들이 기후위기 속에서 흙과 인류의 관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태성 강사가 '흙의 위기, 역사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TED 형식 강연을 진행해 선조들의 지혜와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전달했으며, 기념식장 로비에서는 한국토양비료학회 주관으로 역대 '토양사랑 사진전' 주요 입상작들을 전시해 토양 보전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종구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기후위기와 식량 안보라는 전 지구적 과제 속에서 탄소 흡수 역할을 하는 흙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올해는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본격 이행하여 친환경 유기농업을 2배로 확대하고 농업 생태계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제공

농정원, 2026 귀농귀촌 교육 강사 역량 강화교육 성료

교육 조기 시행으로 정책 변경사항 사전 공유 및 교육 품질 제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윤동진, 이하 농정원)은 귀농귀촌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2026년 귀농귀촌 교육 강사 역량 강화교육'을 조기 운영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존 8-9월에서 2월 말로 앞당겨 운영되었으며, 정책 변경 사항과 핵심 내용을 본격적인 귀농귀촌 교육 시작 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서울과 세종에서 총 3회 진행되었으며, 귀농귀촌 교육 강사 197명이 참여했다.

교육 대상은 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의 '우리 동네 강사'로 등록되어 활동 중인 강사들로, 이번 교육을 통해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2026년 달라지는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트렌드를 사전에 공유해 교육 현

장의 정보 혼선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기초교육인 '귀농귀촌 아카데미' 기본공통 과정 표준교안을 활용해 필수 교과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26년 귀농귀촌 지원정책 현행 법령 ▲농업·농촌의 가치와 귀농귀촌 지원정책 ▲올바른 신용관리 및 농업정책자금 이해 ▲귀농귀촌 지역·품목 선택 ▲농지 선택과 구입 요령 ▲소통 중심 교수법 등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으로 구성됐다.

교육 전에는 강사들로부터 건의사항과 질의사항을 취합하고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를 공유, 교육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플랫폼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2025년 '귀농귀촌마스터(우수강사)' 선정자 중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증서 시상식을 진행해 우수 강사에 대한 격려와 자긍심을 높였다. 교육 수요자에게는 수료증과 이수 교과목에 대한 표준교안이 제공되며, 2026년 귀농귀촌마스터 선정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농정원 김준영 센터장은 "강사 역량 강화교육을 연초에 실시함으로써 2026년 정책 변경사항을 신속히 현장에 반영하고, 귀농귀촌 교육 전반의 품질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강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체계적인 귀농귀촌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etimes.com



▲2026년 강사역량 강화교육 교육 현장. 농정원 제공

논 재배 확대 및 소비 촉진 논의 '중앙-지방 발작물 협의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0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우수 발작물 품종 개발·보급 및 소비 촉진을 위한 '2026년 발작물 신종 품종 개발 과제 및 소비 촉진 중앙-지방 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립식량과학원과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콩, 참깨, 들깨, 녹두 등 주요 발작물의 지역별 적합 품종 선정과 지역적응시험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 확대 정책에 따른 품종 개발 협력 방안과 발작물 소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자체-산업체 연계 우수사례' 발굴·확산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품종 개발과 소비 확대를 연계함으로써 주요 발작물의 안정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논 재배 중심의 생산·소비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농진청은 올해 논콩 등 발작물 전작물 직불제와 연계해 참깨 논 재배를 확대하고, 콩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발작물개발과 김기영 과장은 "특히 논 재배에 적합한 우수 품종 보급을 늘려 생산과 소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etimes.com

국립종자원

과수 종자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신고 필수

과수 종자(묘목)를 수입하려면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정 종자산업법 제40조의2(종자의 수입신고, 시행일 2023.12.28.)

신고대상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과수 종자(묘목)
신고내용	수입 종자의 작물명과 학명, 품종 명칭, 용도, 수량, 양도받은 출처 및 방법 등 첨부서류 : 신고품종 사진 또는 키랄로그, (식물검역대상이라면) 식물검역 협력 증명 서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대리인 신고시) 대리권 증명서류
증명서발급	종자수입 신고서를 받으면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종자 수입 신고증명서 발급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개정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text-align: left;"> <p>농작물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 (www.seednet.go.kr)</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p>산림작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nfsv.forest.go.kr)</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